

DB손해보험

promy life

<프로미라이프>는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DB손해보험 PA(Prime Agent)가 우수 고객님께 드리는 생활 정보지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www.idbins.com
 계약·사고접수 상담 : 1588. 0100
 TM 전용상품 상담 : 1566. 0100
 보험계약대출·신용대출 상담 : 1544. 0100

Trend & Issue

위기에서 찾는 기회

임팩트 투자

당신의 투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투자와 선거의 경제학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2020

Autumn Vol. 51

promy life

CONTENTS

발행일 2020년 9월 1일 (통권 51호)·비매품

발행인 김정남

편집인 김영만

발행처 DB손해보험 홍보팀 02. 3011. 32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기획·디자인 에디아커뮤니케이션 02. 6242. 5551

인쇄 강원일보사 02. 733. 7228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프로미라이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rend & Issue

- 04 **당신의 투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 임팩트 투자
- 08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투자와 선거의 경제학
- 12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오팔(OPAL) 세대'와 시니어 금융
- 16 **규제지역은 무엇이고 어떤 제약이 있나?**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구입 시 알아두어야 할 꿀 팁
- 20 **불확실성 시대, 변동성을 줄여라**
자산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연금저축보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 24 **큰 돈을 버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영화 베니스의 상인과 불로소득
- 28 **멜서스가 우리나라 저출산 보면 뭐라 할까?**
토머스 멜서스와 인구경제학

With Promy

- 32 **아이(이)러브(LOVE)건강보험**
- 36 **가족사랑 우체통**
- 38 **DB News**



위기 에서 찾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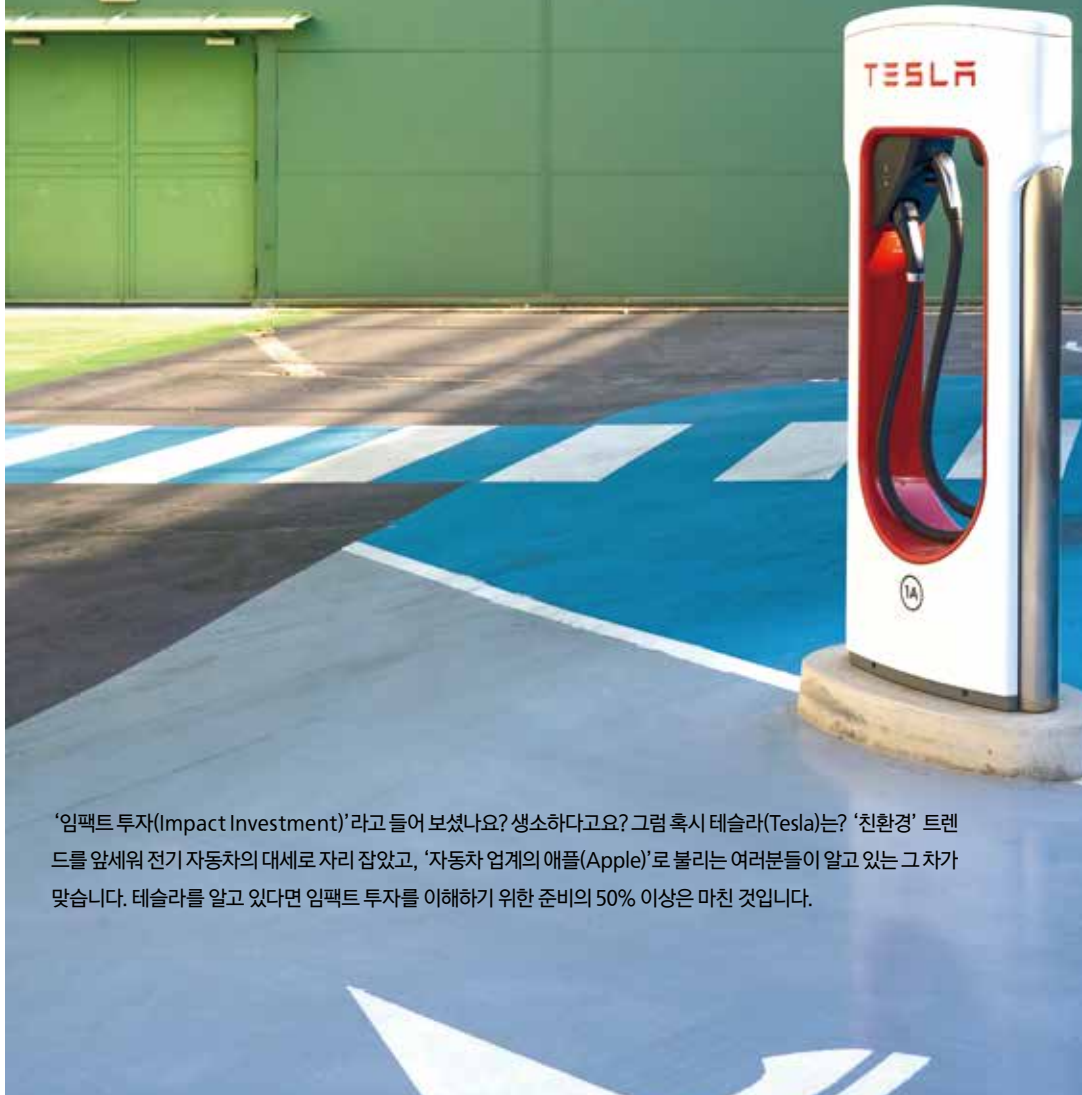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큰 변화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경제 상황을 통째로 바꿔버린 코로나19부터 국제적 무역 갈등,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이번 호 <프로미라이프>와 함께 찾아보세요.

promy life

소중한 _____ 고객님께
_____ 드림

당신의 투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 - 임팩트 투자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라고 들어 보셨나요? 생소하다고요? 그럼 혹시 테슬라(Tesla)는? ‘친환경’ 트렌드를 앞세워 전기 자동차의 대세로 자리 잡았고, ‘자동차 업계의 애플(Apple)’로 불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차가 맞습니다. 테슬라를 알고 있다면 임팩트 투자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의 50% 이상은 마친 것입니다.

임팩트 투자란 무엇인가?

지금 테슬라는 AT&T, 버라이즌(Verizon), 디즈니, 인텔 등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을 능가하는 미국 내 시가총액 기준 15위 상장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해도 CEO인 엘론 머스크(Elon Reeve Musk)는 사업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젊은 사업가였다. 미국 대형 벤처캐피탈 중 하나인 DBL 파트너스의 투자 결정이 마중물이 되어 이후 많은 투자자가 몰려들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서 테슬라가 탄생하게 됐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왜 테슬라에 투자했을까?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하고 싶은 젊은 사업가의 꿈에 반한 것일까? 물론 그 꿈을 높이 평가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를 결정한 이유로 엘론 머스크가 대기오염을 줄여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운송수단인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사회적·환경적으로 좋은 영향을 추구하는 이른바 ‘착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그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임팩트 투자라고 한다.

임팩트 투자의 특징: 공공성과 수익성의 공존

이전에도 임팩트 투자와 유사한 투자 형태는 존재해 왔다. 이른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임팩트 투자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처럼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소위 ‘나쁜 기업’을

배제하고, ‘착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책임투자와 유사하다. 하지만, 사회적·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나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수익성 역시 간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홈페이지.

임팩트 투자는 ‘기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이다. 따라서 임팩트 투자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오해와 편견일 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임팩트 투자자들의 모임인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2020년 임팩트 투자자 연례 조사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사 대상 294개 임팩트 투자자 중 2/3 가량이 시장수익률 또는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도 90% 가까운 투자자들이 목표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환경적 문제 해결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률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임팩트 투자라 할 수 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최빈국 아이티는 빈번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식수 문제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임팩트 투자가 왜 중요한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임팩트 투자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대부분은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첫째 ‘팬더믹(Pandemic)’ 위기가 단순히 취약계층들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로 파급되어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공복지에 대한 니즈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투입될 수 있는 재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번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

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임팩트 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전에도 공공보건과 관련된 임팩트 투자의 성공 사례는 많았다. 인도 최대의 임팩트 투자사인 아비쉬카르(Aavishkaar)는 사라플라스트(Saroplast)라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인도 전역에 3천 개 이상의 저가 이동식 화장실을 공급했다. 그 결과 길거리에서 불일을 해결하던 5억 명 이상의 인도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고, 공공 위생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동시에 사라플라스트도 매년 30% 이상의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투자 측면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잦은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최빈국인 아이티에서도 소셜 벤처기업인 딜로아이티(DloHaiti)가 글로벌 공적 기관들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

하여 정수 인프라를 구축했다. 새로운 정수 시스템 덕분에 그간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던 30만 명은 안전한 식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500개 이상의 작은 기업이 새롭게 설립되었고, 4,000명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동향

그렇다면 향후 어떤 모습이 될까? 미국에서는 20여 개 이상의 임팩트 투자 ETF가 상장되었고, 수많은 펀드가 설립되었다.

골드만삭스,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임팩트 투자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임팩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팬더믹 해결을 위한 임팩트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투자 파트너를 연계해주는 프로젝트 ‘R3(대응·회복·복원적 투자; Response, Recovery, and Resilience Investment Coalition)연합’이 출범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 사이에서도 임팩트 투자는 유행이 되버렸다. 베인캐피탈, TPG캐피탈, KKR, 아폴로캐피탈 등 글로벌 유수의 PEF들 모두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임팩트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고객의 자금을 모집해서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일정한 수준의 수익률 확보가 어렵다면 펀드 조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모펀드들의 임팩트 투자 확대는 임팩트 투자가 수익률 측면에서도 충

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직 국내 임팩트 투자는 약 1,500억 원 규모로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다. 상장 EFT나 공모펀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기금이나 사모펀드, 크라우드 펀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직까지 개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력을 갖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팩트 투자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임팩트 투자가 어렵다면 임팩트 소비자가 되어보자

이제는 돈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임팩트 투자자가 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선 임팩트 소비자가 되어 보는 것도 좋다. 조금만 신경 써서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많다. 이제부터 우리도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자 임팩트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임재호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속성장연구실장

금융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금융과 국제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투자자와 선거의 경제학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은 각각 5년, 4년, 4년을 주기로 열린다. 지난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선거는 시민들이 투표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의미 말고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노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이번 기고에서는 선거가 갖는 경제적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향후 경제가 전개될 방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공약 사항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선거는 정책을, 정책은 경제와 금융시장을 좌우한다

경제학(Economics)의 시작은 18세기 정치경제학(Political-economics)에서 비롯되었다. 말 그대로 정치학(Politics)에서 파생된 분야였던 것이다.

그 후 경제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장 기능을 최우선시해 정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야 함을 강조한 때도 있었고,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때도 있었다.

2020년 현재는 단연 후자에 해당한다. 현실 경제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정부

가 각종 경제 정책(재정, 통화)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 출산/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것 등은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사례들이다.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 1)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
- 2) 그 정부의 개입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기반한다는 점,



3) 그 정치적 의사결정은 선거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표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결국 선거는 서로 다른 정책(공약)으로 경쟁하며, 다수로부터 선택 받은 대표들이 그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정책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미래에 벌어질 것들을 미리 반영하는 특성을 갖는다. 선거를 앞두고 공약되는 정책/테마들과 관련된 업종/기업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공약된 정책/테마들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성과 기업 실적에 반영된다.

투자자라면 이러한 메커니즘과 경제 관점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주목하는 이유 (경제와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선거의 경제학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11월 3일에 열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 규모는 2019년 기준 전세계의 24.8% 비중을 차지한다. 전세계 경제와 규율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라는 점이 11월 3일에 이목이 집중되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선거라는 데 있다. 온갖 정책 기초가 결정되는 꼭짓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전세계의 경제와 산업 구조, 금융시장을 직간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현재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경쟁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밀리는

모양새다. 그 격차는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3월부터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특징도 파악된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은 1인 1표를 집계한 방식인 반면 미국의 선거 구조는 주별 선거인단 제도에 의해 한 주(State)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긴다. 이 선거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에 좀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당락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선거 당일까지 정책 경쟁이나 스캔들과 같은 변수들을 계속 체크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양 캠프의 공약에 따르면 5가지 정도의 큰 차이점이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현 정책이 그대로 연장되고, 바이든이 이기면 바뀐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자.

1)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 들어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2) 산업 내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분할/해체를 주장한다. 1)과 2)를 종합해 보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주식시장은 큰 부담에 노출될 소지가 높다.

3) 트럼프가 기후 협약을 탈퇴한 것과 대비되어 바이든은 기후 협약을 지지하는 동시에 친환경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4)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주의와 비교해 바이든은 자유무역에 무게를 둔다.

5) 바이든은 오바마케어 부활을 예고해 약값을 규제하는 한편 건강보험에 재정지출이 많이 투입될 전망이다.

선거는 더없이 좋은 투자 기회

지금까지 경제와 투자의 관점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아직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약들을 비교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좀 더 시장 친화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은 여러가지 규제와 함께 증세, 친환경, 건강보험 확대 등의 키워드가 부각된다.

본고를 통해 독자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누구에 베팅해야 한다거나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 정책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영진 :
SK증권 리서치센터 이코노미스트

경제TV와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및 환율 분석이 전문 분야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오파(OPAL)* 세대’와 시니어 금융



‘세상이 변했다’라는 표현은 이제 식상하다. 트렌드를 가장 빨리 쫓아가는 청년 세대의 변화는 당연지사(當然之事)이고 중장년층에서의 변화도 이제는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중장년층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55세 정년을 기점으로 75세까지를 젊은 노인(Young Old, YO)으로 명칭했고, 고령화를 선도한 일본에서는 2000년대에 YO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로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트렌드코리아2020’에서 주목할만한 트렌드 중 하나로 ‘OPAL 세대’를 등장시켰다.

*OPAL(Old People with Active Senior) 세대 :

자신을 위해 야깁 없이 소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 연령상으로는 5060, 베이비붐 세대를 대표하는 '58년 개띠'의 '58'을 의미하면서 다채로운 빛을 내는 보석 '오파'과도 연관된 의미이다.

오파 세대가 기존 시니어와 다른 점은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을 위한 인생 2막 설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후 자산관리 전략도 변해야 한다. 변화의 핵심은 기존의 시니어 금융이 ‘곳간형’(노후의 자금을 마련하여 은퇴 전에 채워놓는 형태)이었다면 이제는 ‘우물형’(은퇴 후에도 채워지는 샘물처럼 지속적으로 소득 생성) 자산관리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오파 세대를 위한 자산관리의 기본 전략

과거에는 은퇴시점에 얼마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 얼마 만큼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보내야 할 시간도 길어졌기 때문이다. 즉, 자산관리의 최종 목표가 매월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현금 흐름)를 확보하는 것이 됐다. 은퇴 후 매월 100만 원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이 3억 원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목돈 중심, 안정자산 위주에서 소득 중심의 투자자산 혼합형으로 전략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처럼 노후자산을 예적금 등 안전 자산 위주로만 구성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자산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캐시 플로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캐시 플로우가 있는 자산(소득 중심의 금융 상품)을 운용하는 것이다.

캐시 플로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컴형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인컴형 자산은 각종 채권, 고배당 주식,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 3~5% 수준의 중위험, 중수익 금융상품을 말한다. 인컴형 자산은 현금창출이 원활하고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우수한 중장기 성과를 보이는 장점이 있다.

● **대표적 인컴 자산 _ 채권** : 채권은 발행할 때부

터 앞으로 받게 될 이자와 원금이 정해져 있어 미래 현금을 가장 예측하기 쉽다. 단, 국내채권보다는 해외채권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채권은 대부분 국고채 위주의 거래로 금리수준이 낮아 충분한 이자 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 **리츠 부동산 펀드** :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수익과 매각차익 등을 나눠 갖는 상품이다. 4% 이상의 배당수익률에 세제 혜택까지 피할 수 있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단, 투자자 입장에서 리츠가 어떤 물건에 투자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통상 임대리츠의 경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성이 높고 개발리츠 경우는 수익률은 높은 대신 안정성이 낮을 수 있다.

● **배당주** : 정기적으로 주는 배당주에 장기 투자할 경우 일반 주식에 비해 더욱 높은 성과를 내는 결과는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엔 최근 저금리·저성장과 스튜어디십 코드 도입 등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이 맞물려 주식 투자의 관심사가 성장에서 배당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인컴펀드** : 채권, 리츠, 배당주 등에 대한 직접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펀드매니저를 통해 이들 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인컴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인컴펀드의 장점은 전문가의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인컴펀드도 투자에 앞서 투자대상에 대한 전망을 펀드 유형이나 지역별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금으로 캐시 플로우를 확보

노후소득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연금이다. 연금소득은 구매력에서 물가와 임금상승률이 반영되므로,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구조를 먼저 탄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3층 연금의 9·8·7전략'(국민연금과 퇴직 연금을 각각 소득액의 9%, 8%씩 적립하고 추가로 개인연금에 연간 700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삼아보자.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연금보험상품의 연금액과 비교해 수령액 수준이 높다는 점과 물가에 연동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판이다.

공적 연금 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선택할 때 향후 나의 노후생활비를 생각해 보고 목표 생활비 금액이 정해지면 해당 금액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은 올해부터 50세 이상 장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확대되는 등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도 만기 시 전액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계

좌로 전환 할 수 있어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작년부터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다. 은퇴 후의 캐시 플로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연금 계좌 납부액을 최대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 보험료 추후 납부, 임의계속가입 등을 활용해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과 연금수령시기를 늦출 때 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

셋째, 기존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

기존의 자산으로 캐시플로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동화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향후 주택가격 하락 시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도 유효하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로 가입자(부부 중 연소자)가 5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수령 방식은 크게 종신행과 확정기간형이 있으며 종신행의 경우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상환방식의 편리성이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그동안 수령했던 연금액에 이자와 수수료를 더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또한 부부가 사망한 후에 주택처분가액이 부채를 전부 상환하고 남으면 상

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부채가 처분가격 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한 상환 요구가 없다. 또 상속인이 부채를 전부 상환하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그대로 취하면서 하락 위험은 피할 수 있어 자산가격 하락이 우려 될 경우 최고의 노후 캐시플로우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후를 꿈꾼다면 현실적인 은퇴 준비 상태부터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운용 중인 금융자산을 점검하고 은퇴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은퇴 후 예상 현금흐름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필요할 경우 사전 증여와 상속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보고 은퇴 전에 실물 자산과 금융자산의 리모델링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신준배 :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본부장

금융 동향 전문가로 우리은행 PB사업단과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금융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왔습니다.

규제지역은 무엇이고 어떤 제약이 있나?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구입 시 알아두어야 할 꿀 팁



최근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와 부동산 단기거래자 등 투기수요에 대한 세제와 여신기준을 강화하고 청약 당첨을 실수요자 위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규제지역의 확대와 진입 허들을 높이는 대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지역은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구입과 매각, 아파트 청약 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부담 증가

우선, 조정대상지역은 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종과와 아파트 청약규제가 집중돼 있다. 투기과열 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청약과열 및 분양권 전매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을 선정해 규제한다. 이미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6·17대책을 통해 경기

는 28개 시 3개 군 전역(일부지역 제외)이, 인천은 8개 구,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시 일부가 추가로 지구 지정된 상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아파트 청약 시 1순위 당첨이 제한된다. 7·10대책을 통해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

상지역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2021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강화돼 과표 구간별 0.6%~3.2%인 세율이 1.2%~6%까지 증과될 예정이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추가 인상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10%p, 3주택자는 기본세율+20%p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지역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보유세 부과시점('21.6.1) 이후 양도세 기본세율에 20%p~30%p씩 증과세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 일부는 절세 출구를 찾아 매물을 내놓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

[표 1] 7·10 대책의 중부세 세율 인상

자료원 : 국토부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 ~ 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 ~ 15.4억	3 ~ 6억	0.7	0.8	0.9	1.2	1.6
15.4 ~ 23.3억	6 ~ 12억	1.0	1.2	1.3	1.6	2.2
23.3 ~ 69억	12 ~ 50억	1.4	1.6	1.8	2.0	3.6
69 ~ 123.5억	50 ~ 94억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년 6월부터 보
유세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커질 예정인데다 조정
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한 양
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
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등 경기도 일부와
대구 수성구, 세종시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7월 28일부터 재개발·재건축조
합 및 주택조합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본격화된다. 택지비와 표준건축축비·가산비를 기
준으로 아파트 분양가 책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종
전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
까지 길어지며 단기 시세차익 수요는 분양시장에

서 발붙이기 쉽지 않아진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미
만의 대출인 경우도 9억 원 이하 구간은 LTV(담보
인정비율)의 40%, 9억 원 초과분은 LTV 20%로
구간을 나눠 고가주택의 구간별 대출액을 확 줄이
고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설
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돼 입주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다.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투기과열지구·조
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
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거
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통한 불법 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인데, 적용 시

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
로 보이는 올해 9월부터다.

더 까다로워지는 주택담보대출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
정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요청 등에 따
라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서울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종로·중
구·동대문·동작·서초·강남·송파·강동구 및 세종
시가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세대 당 1건으로 제
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된다. 1세
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기본세율에
10%p 가산세가 부과된다.

LTV·DTI(총부채상환비율) 모두 40%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다. 특히 7월 1일부터 조
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 주택 구
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무주택자는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
되고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
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
역으로 지정(지정기간 '20. 6. 23 ~ '21. 6. 22)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구
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
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
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
만 이용해야 해 2년 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저금리 장기화와 풍부한 부동산자금이 주택시장으
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고 시세차익용 단기거래나
부동산 과다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책
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규제지역 별로 세
금·대출·청약 관련한 정책내용을 꼼꼼히 살펴 자
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함영진 :
(주)직방 빅데이터팀장

각종 미디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년 베테랑 부동산 전문가로 최근 부동산과 IT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변동성을 줄여라

자산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연금저축보험

경제불확실성에도 확대되는 자산가격 상승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생산과 소비, 교역이 위축되는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 불확실성 확산은 자산 가격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서는 자산가격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등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

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을 집계하는 S&P 주택 가격지수는 2020년 4월 223.92로 2019년 4월 215.4 전년동기 대비 3.97% 증가하였다. 주택가

격지수 증가율은 2019년 4월 2.42%에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월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주식, 부동산, 금과 더불어 달러 등 화폐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 은행의 달러 예금과 보험회사의 달러 보험 판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말 기준 달러 예금액은 79억 5,000만 달러(한화 약 9조 7,500억 원) 증가했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달러

보험 판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달러가 강세였던 올해 초부터 늘어나고 있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달러화로 이루어지는데, 보험료 적립 이율이 연간 복리로 3.1%인 상품도 있다. 보험료 적립 이율이 높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증가 속도가 다른 상품에 비해 빠르고 수익률이 높다.

안전자산인 예금 및 적금 상품 수요도 상당하다. 국내 포탈서비스 회사가 최근에 출시한 3% 금리



의 금융상품과 경쟁하기 위해 국내 주요 대형 은행들은 유사한 금리의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물론 3% 수준의 예금, 적금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규모, 신용카드 사용 여부, 자동이체 여부 등 은행이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부과되지만 명목 금리만 두고 보면 매력적인 금융상품이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연금 등 자산 수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대된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이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인 노후 소득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확실성은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 심리를 확대시켰고, 이로 인해 자산 수요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현재 소비보다 미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인데, 미래 소비를 위한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자산 투자가 늘어나고 자산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이다.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자산가치 상승세가 확대된 경험은 예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인 시기는 1998년 IMF 경제위기와 2004~2005년 카드사태 시기이다. 1998년 IMF경제위기 시기에도 주가지수는 1998년 8월 300포인트에서 1999년 7월 1,000포인트까지 상승하였고, 카드사태 시기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2005년 8월 31일에는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자산가치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

투자 증가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의 이면에는 자산가치의 하락 위험이 상존한다. 1998년 IMF 금융위기를 극복한 직후 2003~2004년에는 신용카드 사태를 겪었고,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어 2010년에는 수도권 2.9%, 서울 2.2% 각

각 하락했다. 주가지수는 2008년 10월 1,000포인트 이하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자산가격 상승세 확대는 하락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미래 소득 감소 위험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가격 하락 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보증 혹은 헤지(Hedge) 수단이 포함된 금융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의 기초가 되는 내재자산(Underlying Asset)의 가치가 예상을 벗어나 크게 하락한다면 다양한 헤지 수단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자산가격 하락 위험을 대비하고 미래 소비의 실질 가치 변동을 줄이는 금융상품이 연금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하고 있어 수익률의 하한 역할을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이 정하는 예금이자율이 아닌 '공시이율'이라는 금리 체계로 계약자가 적립하는 보험료에 금리를 부가한다. 공시이율은 보험 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시장금리, 은행 이자율 등 다양한 금리를 평균하여 설정한다. 이 공시이율의 하한이 최저보증이율이다.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하도록, 혹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연금의 또 다른 경쟁력은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16.5% 비과세 혜택이다.

요약하면 약정된 기간 동안 연금저축보험료를 납부하면 최저보증이율의 하한이 설정된 복리의 공

시이율로 보험료를 축적할 수 있고, 연금 자산 적립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자산가격의 상승과 하락 기간의 위험을 자연적으로 헤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부터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단점이라면 사업비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비싸고 중도에 헤지할 경우에는 모든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렵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기 투자가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변동성 확대로 단기 투자 위험도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커져 오히려 장기 투자가 변동성을 줄일 수도 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명목 수익률보다 세금 혜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자산가격 하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자산가치 하락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전세가격 변화 전망과 대책", 2011.2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 총액보다 만기에 적립되는 해지환급금이 더 큰 보험상품을 말한다. 3,5,10년 후 목돈으로 받는 상품도 있고 연금으로 받는 상품도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이기 때문에 위험 보장도 추가할 수 있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삼성금융연구소 등에서 금융산업을 담당했으며, 현재 국내외 보험업 현황과 성장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영화로 만나는
경제

큰 돈을 버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영화 베니스의 상인과 불로소득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일단 뭔가 좋은 느낌은 아니다. 주로 내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로소득이 정말 나쁜 것인지 불편한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예전부터 불로소득을 죄악시하는 DNA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소개하는 영화 '베니스의 상인'의 배경인 1596년 베니스에서도 불로소득에 대한 적대감이 존재했다. 당시 베니스에는 반유대 정서가 컸는데,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베니스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화의 주인공 샤일록은 대부업을 통해 이자를 받아 부자가 된 유대인 중 한 명이었고, 또 다른 주인공 공인 안토니오는 그런 샤일록을 경멸하고 모욕을 주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토니오는 돈이 필요했던 친구 베사니오를 위해 샤일록을 찾아가 돈을 빌리고 보증을 서게 되는 일이 생긴다.

샤일록은 평소 자신에게 모욕을 주던 안토니오가 돈을 빌리러 오자 이런 제안을 한다. "이자는 필요 없으니, 대신 당신이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살 1파운드를 내게 달라".

그 다음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안토니오는 결국 돈을 갚지 못했고, 법정에서 샤일록은 약속한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법정은 계약대로 살 1파운드는 주겠지만, 대신 그의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절대 안 된다

는 판결을 내려 안토니오의 손을 들어준다.

당신이 사장보다 더 오래 일하고

월급은 적게 받는 이유

얘기는 이렇게 교훈적인 것처럼 끝나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좀 불편하다. 과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던 샤일록을 못된 리대금업자로만 취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를 모욕하고 경멸하던 안토니오는 정의로운 사람일까? 정말 '노동에 의해 벌어들인 소득'만 선한 것이고 '노동을 통하지 않은 소득(불로소득)'은 악한 것일까?

그렇다면 주변 현상을 한번 살펴보면 "노동과 보상"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회사에서 노동을 많이 하는 순서를 따진다면 '직원>경영진>오너' 순서로 일을 많이 한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순서는 어떤가? 돈을 버는 순서는 노동량의 순서와는 정반대로 '오너>경영진>직원' 순으로 많이 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직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경영진은 판단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오너는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사업을 크게 벌여야 한

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매커니즘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대가가 가장 크다.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대가

그런데 불로소득 문제는 단순히 누가 돈을 많이 버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엘론 머스크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엘론 머스크는 자신의 꿈에 희망을 걸고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그리고 그는 성공의 대가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그의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대가는 단순히 그의 ‘재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뒤에는 그의 재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훨씬 더 큰 얘기가 있다.

그의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세워진 회사들, 즉 테슬라, 솔라시티,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들의 성공

은 전세계와 사회/경제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다. 전혀 새로운 세상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했고 꿈꾸게 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수많은 기회들이 열리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며 세계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는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있다. 불로소득을 향한 노력이 사회/경제의 진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엘론 머스크와는 반대로 불로소득을 강조하며 노동의 가치만 신성시한 사람도 있었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했던 칼 마르크스이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공산주의가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진정한 진보는 단순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불확실성에도 높은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사회와 경제의 진보를 만들어낸다.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유대인 샤일록의 캐릭터는 오늘날까지 ‘돈만 아는 고리대금업자’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2004년판 영화에서 안토니오역은 제레미 아이언스, 샤일록은 알 파치노가 맡았다.

착한 불로소득과 나쁜 불로소득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에서의 리스크 테이킹도 엘론 머스크의 행위처럼 가치 있는 것일까? 불행히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 부동산 시장을 향한 리스크 테이킹은 엘론 머스크의 그것과는 달리 GDP에 공헌하는 바가 거의 없다. 국가의 축적된 자본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이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려가는 국가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다만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은 있다. 사회를 진보시키는 리스크 테이킹만 취하고 그렇지 못한 리스크 테이킹은 떼어버리면 좋겠지만, 이 둘을 갈라낸다는 것은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영혼을 갈라놓는 일만큼이나 힘들다. 물론 교육 등을 통해 끊임 없이 좋은 리스크 테이킹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또한 불로소득을 언급하는 것이 탐관오리로부터 재산을 빼앗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적 홍길동’이 되는 것처럼만 말하면 안 된다.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불로소득을 죄악시키는 것은 자

칫 사회의 발전 원동력을 꺼버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베니스인들은 불로소득을 취하는 샤일록을 없애 버리기만 하면 사회 정의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사회는 결국 성장할 수 없다. 왜 샤일록이 사회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깊게 고민하고, 그가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변질되지 않도록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만든 사회만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은 1596년을 살았던 베니스인들뿐만 아니라, 2020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이은택 :
KB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증권 투자 분야 전문 분석가로 한국경제신문이 뽑은 2019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기술적 분석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경제이야기인물로 보는
경제사

말서스가 우리나라 저출산 보면 뭐라 할까?

토머스 말서스와 인구경제학



1798년 런던에서 익명의 저자가 제목이 아주 긴 책을 내놓았다. 《미래 사회의 개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원리에 관한 연구 그리고 윌리엄 고드윈, 콩도르세, 그 외 여러 작가를 상대로 한 논평》. 훗날 세계의 고전이 된 《인구론》이다. 발간 즉시 큰 화제를 불렀고, 간행 후 5년 만에 반론을 편 소책자가 20권이나 나왔다. 이윽고 공개된 저자의 실명은 토머스 로버트 말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 당시 32세인 영국 국교회 목사였다.

너무 많은 인구는 전쟁과 기아로 줄어든다

《인구론》의 주장은 암울하다. 식량 생산량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는 인구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인구론》에 따르면 인간은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식으로 인구를 늘린다. 그러므로 1 + 2 + 4 + 8 ...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식량은 아무리 생산량을 늘리려 힘써도 1 + 2 + 3 + 4 ... 식으로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따름이다. 결국 조만간 식량 부족 사태가 온다. 빈부차는 엄존해, 궁핍한 사람들은 기아와 영양 부족 또는 질병으로 죽는다. 생존을 위한 약탈과 살인, 전쟁 등 악덕이 만연하면서 늘어났던 인구는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노동자의 행복도 같은 이치로 인구법칙에 좌우된다. 한 나라의 생활기반이 국민 전체를 부양할 정도에 이르면 국민 생활은 안정될 것이다. 그럼 노동자 인구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평균임금이 떨어져 노동자들 생활은 전보다 더 궁핍해진다.

한편, 노동자 인구 증가는 식량 부족을 야기해 가격 상승을 빚는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농업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고용해 생산량을 늘린다. 그럼 공급이 늘어 식료품 가격은 다시 하락하고, 노동자들은 그만큼 실질임금이 올라 생활 수준이 나아진다. 그러면 다시 인구가 증가해 임금이 하락하고 궁핍화가 진행된다.

말서스처럼 경제와 관련하여 인구 문제를 중시한 학자들은 말서스 이전에도 많았다. 때문에 인구 문제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론》이 화제를 부른 데는 정치 요인이 컸다. 《인구론》이 나올 즈음 영국에서는 1776년에 일어난 미국 독립혁명,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을 지지하던 세력 그리고 혁명을 지지하지 않



토머스 로버트 맬서스 (1766~1834)

는 보수세력이 대립했는데, 《인구론》이 끼어들어 보수세력을 옹호하는 논리를 제공했던 것이다. 《인구론》은 프랑스혁명을 지지하는 사회개혁론자들의 이상과 달리 사회를 이상적 형태로 개혁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적 사회를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인간이 갖는 식욕과 성욕 같은 자연법칙이 빈부격차를 엄존시키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모든 악의 근원은 인간의 번식력 - 인구 원리

맬서스는 《인구론》 서문에서 자기 이론의 출발점이 ‘미래 사회의 개량’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히면서 사회혁명을 지지하는 급진파에게 반론을

제기했다. 맬서스의 비판은 특히 당시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과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를 향했다.

고드윈과 콩도르세는 기존 법률과 제도의 진보를 막는 최대 장애물을 사유재산에 근거한 사회의 경제·정치 불평등으로 보고, 불평등이나 빈곤이 개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드윈은, 인간 개개인을 완전한 인격체로 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낙관하고 교회나 귀족에 의한 입법과 정부의 폐지를 주장해 ‘무정부주의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했다.

맬서스는 고드윈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빈곤이나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덕은 인간이 만든 나쁜 제도에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왕성한 성욕 즉, 번식능력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맬서스에 따르면, 인간 사회는 왕성한 번식으로 인구가 과도하게 늘게 마련이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모두 먹고 살기에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한다. 자연히 빈곤과 기아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살아남은 인간에게 다시 충분히 식량이 제공될 때까지 지속된다. 살아남은 이들이 다시 풍요롭게 살게 되면 또 성 충동 때문에 과잉 출산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는 순환이 이어진다. 이런 순환은 자연법칙이므로 벗어나기 쉽지 않다.(벗어나기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금욕정신과 도덕성 교육이다.)

요컨대 ‘인간 사회는 왕성한 번식 때문에 빈민이 생긴다’는 관점에서 맬서스는 당시 영국에서 시행된 ‘빈민구제법’을 규탄했다. 빈민을 원조하는 빈민구제법은 빈민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 아이를 만들게 해서 기아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맬서스는 ‘빈민구제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법률이 책임져야 할 빈민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맬서스의 빈민구제법 폐지론은 오늘날에 비유하면 현대 국가가 당연시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셈이었으므로 당시 개혁론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반면 부유층으로부터는 크게 환영 받았다. 당시 영국 경제학자 리카도(David Ricardo)는 《인구론》이 부자들로 하여금 ‘빈민들은 불행할 참고 견뎌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게 돕는 구실이 돼 주었다고 지적했다.

맬서스가 경고하는 인류의宿命

UN 자료에 따르면 200여 년 전 맬서스가 인구 증가로 인한 인류사회의 어두운 미래를 전망할 당시 세계 인구는 6억 명(1700년)에서 9억 명(1800년) 수준이었다. 맬서스 시대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인구는 78억 명(2020년 7월 현재)을 넘었다.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선진공업국들은 이전에 비해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다. 《인구론》의 주장과는 다른 현실이다.

맬서스는 두 가지를 잘못 판단했다. 첫째는 인류가 더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을 실현할수록 인구

증가가 억제된다는 사실(교육 수준이 높고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이를 적게 낳는다)이다.

둘째는 과학기술의 역할(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질자원 생산량이 인구 증가 속도를 훨씬 웃돌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렇다고 맬서스의 주장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 크게 보면 지구의 인구 문제를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늘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 아직도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민처럼 절망적이고 비참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현저하게 개선되리라는 전망도 없다.

가난한 이들의 사회에서는 여전히 맬서스 인구론이 살아 숨쉰다. 심지어 선진공업국조차 내부에는 지역마다 많은 격차가 있다. 최근 빈곤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에 풍요와 빈곤이 공존하면서 사회문제가 빚어지는 지역도 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가 맬서스의 경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곽혜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일반인에게 쉽게 핵심을 짚어주는 경제교육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인 경제 300문300답 시리즈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 질병과 위험에서 지켜주세요

아이(I)러브(LOVE)건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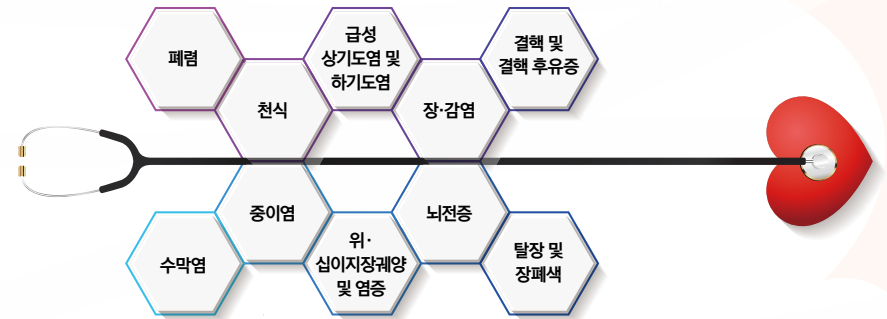
어린이보험은 생각지 못했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는 면역력이 약하고 판단력도 미숙하기 때문에 질병과 상해에 어른보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도 더 높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병이 유행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더 깊어졌는데요. DB손해보험의 아이(I)러브(LOVE)건강보험은 폭 넓은 보장 범위와 합리적인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용한 보험상품입니다. 점점 늘어만 가는 질병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도 안심

아이(I)러브(LOVE)건강보험은 자녀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10대질환에 대한 수술비와 입원일당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이(I)러브(LOVE)건강보험이 보장하는 10대질환에는 폐렴, 결핵 및 중이염, 호흡기질환 등이 포함되어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들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녀 10대질환 분류표에 의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

* 특약 가입시



빠르게 늘고 있는 어린이 성인병

생활 환경이 변화하면서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3대질환(심장, 뇌질환 및 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14세 어린이의 3대 질병 진료비는 연평균 약 9.3%씩 증가하고 있으며, 3대질환 관련 병·의원 내원일수는 한 해에 250,000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추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의 아이(I)러브(LOVE)건강보험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보장의 범위와 내용을 더욱 강화한 상품입니다.



한 번 가입으로 100세까지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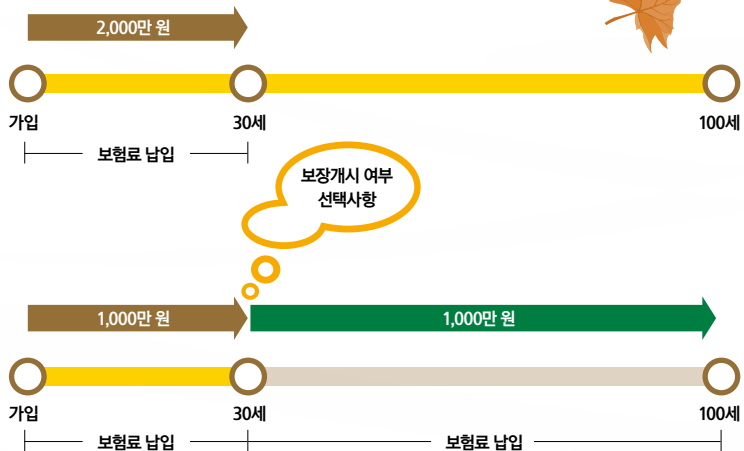
아이(이)러브(LOVE)건강보험은 상해, 질병, 비용손해, 배상책임 등의 광범위한 위험을 100세까지 보장(일부 갱신 담보의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 및 재가입으로 보장)합니다.

평생 보장이 필요한 3대질병진단비는 미래보장 가입제도를 통해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미래보장가입제도는 가입할 때의 보험료와 인수기준으로 30세 이후에 보장이 개시되는 3대질병 진단비를 미리 가입하는 것으로, 30세 이후에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장기 필요한 보장은 30세만기로 저렴하게 늘어나는 3대질환은 100세까지 보장

* 해당 특약 가입시

<예시>



* 3대질병 진단비란?

심장, 뇌 및 암을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허혈심장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 뇌혈관질환진단비, 암진단비, 유사암진단비를 말합니다.

잔병부터 큰병까지 걱정 없이

아이(이)러브(LOVE)건강보험은 자녀들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나 자주 일어나는 사고 등에 대비한 광범위한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이)러브(LOVE)건강보험은 하나의 보험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요진단	골절(치아포함)/소아백혈병/한방외래치료비/주요 생활질환진단비/상해-질병 후유장애/3대질환(암, 뇌, 심장)진단비
입원	상해-질병입원일당/중환자실 입원일당/어린이생활질환/3대질환 입원일당(암, 뇌, 심장)등/77대질환입원일당 등
수술	상해수술비/질병수술비/1~5종수술비/양성신생물수술비/77대질환수술비/3대질환수술비(암, 뇌, 심장) 등
기타보장	유치 및 영구치 보존치료/영구치보철치료/치주질환치료/안과관련수술비/교통사고처리지원금/(가족동승)자동차부상치료비 등

* 해당 특약 가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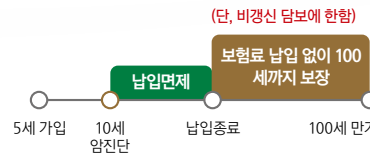
큰일이 생기면 납입면제, 다자녀는 할인까지

아이(이)러브(LOVE)건강보험은 자녀나 부모님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 주는 납입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입면제나 해지환급금 미지급 여부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어 원하는 플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이면 보험료의 3%가 할인되며, 가입 후 처음으로 주피보험자의 동생이 출생하면 2% 할인(보험료 할인은 최대 3%까지)됩니다.

납입면제(피보험자)

▶ 100세만기(해당 플랜 가입시)



납입지원 (부양자)

보험료 납입 주체인 부양자 사고시 보험료 납입지원
납입지원 사유 (5종)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 암(유사암 제외) / 뇌졸중 / 급성심근경색증

납입면제 사유 (7종)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 암 / 유사암 / 뇌혈관질환 / 허혈성심장질환 / 5대난치성질환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요

가족사랑 우체통

평소에 미처 말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 이제 마음 속에만 담아놓지 말고 표현해 보세요. DB손해보험 '가족사랑 우체통'을 통해 고객님의 가족사랑 메시지를 전해 보세요. E-mail,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으로 전해드리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코로나가 좋은 점도 있네?

휘종아 코로나 때문에 엄마랑 집에 있으면서 좋은 기억 많이 쌓았니? 때로는 엄마가 힘들고 지쳐서 네게 야단도 치고 나무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유치원가는 것보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다고 해줘서 고마워! 5개월간의 휴가 같은 일상을 돌아보니 너랑 정을 더 많이 쌓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남은 며칠은 유치원가서 또 즐겁게 생활하고 신나는 방학을 맞이하자. 사랑해!

- 휘종이를 사랑하는 엄마(구희아)

아들, 잘 지내고 있니?

군에 입대하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려 휴가 한 번 나오지를 못하는구나. 면회도 제한되어 버렸으니 가는 발과 오는 발이 모두 묶여버렸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고 우리 가족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단다. 온 국민이 당국의 방침을 잘 따라 이 힘든 시국을 이겨나가듯 아들도 군의 규칙을 잘 따르고 군생활 잘 하리라 믿는다. 언젠가 만날 그날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가... -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이향숙)가

3박 4일이지만 한 달처럼~

요즘 비 오고 날도 푹푹한데 회사 다니다 지원이 챙기랴고생 많지? 내가 더 함께해야 하는데 요즘 야근이 많아. 여보에게 육아며 집안일이며 혼자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속상하네. 이번 여름휴가는 여보가 꼭 하고 싶었던 제주도 한 달 살기 해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박 4일로 줄어버렸네... 그래도 알차게 놀고 폭 쉬고 오자! 그땐 내가 지원이 껌딱지처럼 붙어서 볼게. 여보는 폭 쉬어~ 사랑하는 내 맘 알지? - 고마운 마음을 담아 남편(이지훈)이

항상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

여보 나야~ 요즘 서운이 보는 거 힘들다고 맨날 투정 부려서 미안해. 그래도 여보는 퇴근하자마자 나와 육아 퇴근 시켜주고, 서운이 잘 봐주고, 항상 내 건강 먼저 생각해 줘서 고마워. 날씨가 너무 좋은데 집에서 서운이만 보고 있으니... 조금 지치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도 이 상황 모두 지나갈 거라고 믿으니까! 우리 같이 조금만 더 힘내자! 나도 여보한테 기운 주고 힘 주는 말만 하도록 노력할게 ㅎㅎ. 창민씨, 서운아빠, 올 여보~ 내가 많이 사랑해요~ - 당신의 아내 혜진

DB손해보험 '가족사랑사이트' 에서 가족사랑을 실천하세요



DB손해보험은 가족사랑을 선도하는 대표 손해보험사로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가족사랑 사이트(dbins-promy.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 사이트는 고객이 직접 가족사랑을 키우고 지킬 수 있도록 이벤트 △ 프로모 리포터 △ 프로모 Space 등 다양한 가족사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 우체통 등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얻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방법: PC / Mobile_www.dbins-promy.com

DIY 마스크로 안심, 안전 '가족사랑 사진관 시즌3' 캠페인 양양에서 진행



DB손해보험은 여행지 가족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강원도 양양에서 가족 사랑 사진관 시즌3' 캠페인을 펼쳤다. '가족사랑 사진관 시즌3'는 가족사진 무료촬영을 통해 가족 사랑의 가치를 전파하는 DB손해보험의 대표 캠페인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응원하는 테마로, 8월 한 달간 온 오프라인에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찾아가는 가족사랑 사진관 오프라인 행사는 방문객들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

등 철저한 방역시스템과 안전 거리 속 줄 서기, 일방 통행하기 등 안전 수칙 속에서 진행됐다. 방문객들은 방역 절차를 거친 후 마스크 DIY 존에서 꾸미기 스티커를 가지고 마스크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어서 가족사랑 사진관 포토 존에서 아름다운 양양 해변을 배경으로 전문가가 찍어주는 가족 사진 촬영 후 인화된 가족사진을 액자로 받았다. 이번 행사는 여행지에서 DIY 마스크 만들기 체험과 마스크 가족사진을 통해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상황을 특별한 추억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 좋은 이 보험 하나면
꼭 필요한 224가지 보장!

(기본계약 1개 + 223개 특약)

참 좋은 행복플러스 종합보험

하나의 상품으로 필요한 보장을 한 번에! (특약 가입시)
나에게 꼭 필요한 224가지 보장으로 (기본계약 1개 + 223개 특약)
건강과 질병에 대한 걱정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전립선비대증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말기간경화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급성근경색증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뇌졸중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허혈성장질환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당성근경색증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만성간질환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만성뇌동맥경증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당성근경색증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도주사고, 영양을 보상해줘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당성근경색증 수술비 1년미만 50%, 1회한
크론병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가족일상생활 변상책임 실손, 중독가임시 비예보상	당성근경색증 진단비 1년미만 50%, 1회한
확산 진단비 항암치료 2회 이상	관상동맥성형 수술비 1년미만 50%	요로결석 진단비 1회한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비 1년미만 50%, 1회한
		골절 진단비 치료포함
		뇌내출 혈수술비 1년미만 50%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준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기정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30700호(2020.05.20))